시키보가 기술 지도한 중국의 추자 날염 공장 -

품질 향상으로 주문 쇄도

시키보는 자회사로 하여금 2003년 중국 상하이에 있는 날염 공장인 상하이、시키시마 복방직품(上海、敷島 福紡織品)에, 일본으로 수출될 침구지(寢具地)의 가공을 목적으로 70%를 출자하였다. 시키보는 이 공장에 일본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기술 지도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난 현재, 일본이 요구하는 가공품의 품질 수준에 올라 주문이 생산 능력을 완전히 채우고 있는 상태이다.

월간 날염 능력이 35만m 되는 스크린 날염기를 1대 갖추고, 2004년 8월초부터 2교대로 조업을 시작하였는데, 주문량은 늘고 있어 현재 염색 경험자를 모집 중이며, 머지않아 3교대 24시간 조업이 시작된다.

시키보는 일본 품질 수준의 침구지 가공을 중국 시장 가격으로 하기를 목적으로 이 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지금 주문 받은 가공은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할 생활 자재들이며, 원래 목적으로 하던 침구지를 가공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남아 있을 뿐이다. 침구지 가공 만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바꾼 결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시키보는 이 날염 공장에서 남아있는 자본 30%를 출자한 기업은 시키보와 깊은 거래 관계가 있는 상하이 행복방직인염(上海 幸福紡織印染)으로서 복방직품 날염 가공과 같은 부지 내에 있다. 행복방직인염 공장에는 로터리 날염기 2대와 스크린 날염기 3대를 보유하고 월간 100만m를 가공할 수 있는 능

력을 갖고 있다. 이 공장의 기술 지도 및 품질 관리도 모두 상하이·시키시마 복방직이 맡고 있다. 이전에는 가공 스페이스가 남아도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현재는 언제나 주문이 가공할 수 있는 용량을 꽉 채우고 있는 상태이다.

이 행복방직인염 공장의 시설은 모두 기계 폭이 280cm의 초광폭기(超廣幅機)로서, 중국이나 구미의 침구 폭은 일본보다도 넓어서 초광폭기가 필요한데, 일본에는 이러한 초광폭기가 없다. 2004년 9월에 상하이에서 홈 텍스타일전이 개최되어, 시키보와 관련이 있는 침구지 도매상이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침구지를 출품하였는데, 직물 폭이 좁은 것이 문제가 되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한다.

상하이·시키시마 방직인염은 앞으로 상하이 행복방직인염의 초광폭기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중국 내수 시장 판매용이나 구미 수출용 생지의 주문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